하화중생의 대서원이 담긴 경전



원욱 스님의 경전산책

⑫ 천수경1 – 천수천안관세음보살의 등장

모든 법회에서 불자들의 다함께 외우는 경전은 〈천수경〉과 〈반야심경〉 딱 2개뿐이다. 〈천수경〉은 우리들이 불교를 어떻게 믿고 신행할 것인지에 대한 모든 맹세가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법회시간에 독송하는 모습을 보며 숙연해진다.

〈천수경〉은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담은 것이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여시아문' 스타일의 경전은 아니다. 후대에 만들어졌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오롯이 담고 있기 때문에 경이라 하기도 했고, 〈천수경〉을 탄생시킨 모본이 이미 있다.

바로 〈불설 천수천안관세음보살 광대원만무애대비심 다라니경〉 혹은 줄여서 〈천수관음경〉이다. 한역경전은 중국 당나라 삼장 가범달마가 번역했고 한글대장경 제197책 P289에 실려 있다. 이 경전을 통해 우리가 의무감으로 독송하는 〈천수경〉의 세계를 자비심을 지니고 폭넓게 이해할 수 있게 되어 관세음을 향한 마음이 깊어졌다.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한 때 석가모니부처님께서 보타낙가산 관세음궁전 보장엄도량에 계시사 보배로운 사자좌에 앉으셨다. 부처님은 그 곳에서 총지다라니를 말씀하시기 위하여 한량없는 보살마하살들과 함께 하였다.

그 때 관세음은 법회가운데 있다가 가만히 신통을 나투는데 머리에 쓴 화관 속 정수리에서 광명을 놓으니 시방세계와 삼천대천세계가 밝게 빛나 해와 달, 그리고 별까지 빛을 잃을 정도였다. 이 모습을 보고 놀란 총지왕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오, 놀라워라. 이 멋진 광명을 연출하신 분은 누구신가요? 부처님이시가요? 보살인가요? 범천인가요? 혹시 마왕인가요? 저희는 너무 궁금합니다. 부디 어찌된 사연인지 부처님이 알려주세요."

"오냐, 오냐, 기특하구나, 네가 대비심으로 여기모인 대중들과 미래의 대중 모두를 대표해서 묻는구나. 내 기꺼이 말해주리라. 이 자리에 한 보살이 있으니, 이름이 '관세음자재'다. 그는 오랜 세월 대자대비를 성취하고 무량한 다라니문을 닦은 결과 이제 모든 중생들을 안락하게 하고자 신통력으로 광명을 나툰 것이니라. 자, 관세음은 이리 나오시라."

"거룩하신 부처님, 저에게는 대비심다라니주가 있어서 지금 빨리 말하고 싶습니다. 모든 희망과 서원이 빠르게 이루어지게 하고자 함이오니 부처님이시여. 설법할 수 있게 속히 허락하여주소서!"

"선남자여, 장하다, 그래, 지금이 바로 그 때니 어서 속히 전하라."

"부처님이시여, 과거 무량겁 전에 계셨던 천광왕정주여래께서 어느 날 황금빛 손으로 저의 정수리를 만지시며 이 대비심주를 가지고 미래세상에 죄업이 무궁무진한 중생들을 위하여 이익이 되는 일을 하라셨습니다. 제가 이 다라니를 들을 때 초지(十地중 환희지)에 머물렀는데 한 번 듣고는 바로 8지(부동지)까지 순식간에 뛰어 올랐습니다. 저는 가피를 받자 용기내어 부처님께 청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오는 세상에 중생을 다 이롭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지금 당장 내 몸에 천개의 눈과 천개의 손이 생기게 해주소서. 그 말을 하자마자 즉시에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 제 몸에 광명을 놓으시니 천수천안이 구족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부터 언제나 이 다라니을 수지하고 환희용약하였더니 이후로 저는 어머니 모태에 들지 않고 항상 부처님 앞 연꽃 위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제 누구든 이 다라니를 수지하려는 이들은 모든 중생을 위하여 자비심을 일으키고 저의 이름을 부르며 다음과 같은 원을 발하여야 합니다."

바로 '나무대비관세음 원아속지일체법'으로 시작하는 열가지 원(十願)과 '아약향도산 도산자최철'로 시작되는 여섯가지 향(六向)이다. 이제 저희들이 일체법, 지혜안, 일체중, 선방편, 반야선, 월고해, 계정도, 원적산, 무위사, 법성신이 성취되어 중생을 위한 삶을 살아갈 기반(상구보리)을 성공적으로 마련하게 해주시고, 육도에 살아가는 이들을 돕게(하화중생) 해달라는 간절한 마음이 바로 불자들의 기본자세라는 것이다. (계속)

〈서울 반야사 주지〉

일체(一切)는 다 유심조(唯心造)다



김원수의 〈금강경〉 강의

⑫ 마음법

마음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가 보다. 색성향미촉법을 보는 마음을 안식, 이식, 비식……. 법식 등으로 이야기 하는데, 이러한 마음들을 현재의식이라 하기도 하고 제6식이라고도 한다. 전에 말씀드렸던 반지에 대한 애착심, 사람에 대한 애착심은 현재의식이요 제6식의 마음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현재의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잠재의식도 있다. 잠재의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잠재의식 더 깊숙한 곳에 불성(佛性)이라는 마음도 있다. 이 불성을 부처님께서는 반야심경에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이라고 하시지 않았던가.

무엇이 잠재의식인가? 우리나라 속담에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다. 열길 물속을 볼 수 있는 마음을 겉마음, 즉 현재의식을 말하는 것이고, 한길 사람 속을 모른다는 사람의 마음이 곧 속마음, 즉 잠재의식인 것이다.

현재의식, 즉 안식, 이식, 비식 등 6식의 겉마음은 색성향미촉법에 붙어 각종 알음알이를 내는데, 그 알음알이를 부처님께 바치게 된다면 속마음이 드러나게 된다. 현재의식을 겉마음이라 한다면 잠재의식을 속마음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사람의 속마음 이것은 곧 7식이 된다. 평소에 아주 부드럽게 느껴졌던 사람도 꿈속에 가끔 무서운 얼굴로 등장하는 것을 보는데 이때 사람들은 저 부드러운 사람이 어째서 꿈속에는 그리 두렵게 보일까? 라고 하며 의아해 한다. 부드러운 얼굴은 그의 겉마음이라면 꿈속에 보이는 무서운 얼굴은 자신의 선입견이 소멸된 지혜로 본 상대의 모습이요, 정확히 말하면 그와 맺은 전생의 업보가 되는 것이다.

현재의식은 우리의 주위 환경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기에 무력하기 짝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원한다하여도 이 원하는 마음은 주위에 영향을 미치어 어떤 결과를 이끌어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위 환경에 영향을 받는 종속적 특징의 이 마음은 무엇을 이루는 힘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잠재의식은 모든 것을 이루는 힘이 있다. 잠재의식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다 이룬다. 왜냐하면 잠재의식은 주위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기에 변덕스럽지 않고 변덕스럽지 않은 마음은 원하는 그대로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화엄경의 말씀처럼 심여공화사(心如工畵師) 능화제세간(能畵諸世間)인 것이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시시각각으로 소원 성취한다. 우리의 현재의식이 시시각각으로 소원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의식이 시시각각으로 소원성취하는 것이며, 늘 자신의 길흉화복을 창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보살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보살의 마음은 우리의 현재의식처럼 변덕스럽지도 아니하고 잠재의식처럼 이기적도 아닌 것이다.

현재의식도 잠재의식도 초월한 마음 곧 불성이 드러난 마음, 이것이 보살의 마음인 것이다. 보살의 마음은 모든 상(相)을 떠난 마음, 모든 사람과 사물에 붙은 마음을 다 떼어낸 마음이기에 부처님처럼 길흉화복을 좌지우지하고 산하대지를 마음대로 배치하는 것이다.

자신이 극본을 잘 쓰는 사람이고, 또 돈도 많이 있어 영화를 제작 하며 감독까지 한다고 상상해 보자.

보살과 중생은 어떻게 다른가? 보살은 자신이 쓴 극본에 의해 이 세상이 전개됨을 알고 세상을 사는 것이며, 중생은 자신이 쓴 극본에 의해 이 세상이 진행된 줄 모르고 세상을 사는 것이 다를 뿐이다.

이 세상이 자신의 마음이 극본을 쓰고 감독을 하고 연출을 한 허상의 세상이라고 알게 되면 그에게는 일찍이 어려운 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모든 불행은 일시에 사라지게 될 것이다. 모든 무지무능은 다 허상임을 알게 될 것이며 자신은 비로소 되돌아온 탕자임을 깨닫게 되고 부처님 세계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사회복지법인 바른법연구원 이사장〉



청운 스님의 생활속 '이뭣고' 수행

마음이 곧 부처요 부처는 곧 깨달음

보제존자께서 말하시길 염기염멸(念起念滅) 위지생사(謂之生死) 당생사지제(當生死之際) 수진역재기화두(須盡力提起話頭)라 했다. 그 의미를 살펴보면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이 멸함을 생사라 부르니, 모름지기 모든 힘을 다해야 화두(이 뭣고)를 든다"는 말이다.

화두순일(話頭純一) 기멸즉진(起滅卽盡) 기멸즉진처(起滅卽盡處)는 말도 있다. 즉 "화두(이 뭣고)가 순일해지면 일어나고 멸하는 것이 곧 다한다"는 뜻이다.

생각이 일어나고 멸함이 곧 다한 곳을 이르되 이를 고요함(寂)이라 하니. 위지적(謂之寂) 적중무화두(寂中無話頭) 위지무기(謂之無記)라고 했다. 고요한 가운데 화두(이 뭣고)가 없으면 무기라 하고, 적중불매화두(寂中不昧話頭) 위지영(謂之靈)이라, 고요한 가운데 화두(이 뭣고)가 매(昧)하지 아니하면 영(靈)이라고 이른다는 말이다. 즉 차공적영지(卽此空寂靈知) 무괴무잡(無壞無雜) 여시용공(如是用功) 불일성지(不日成之)라는 말로 귀결할 수 있다. 이 공적영지가 무너짐도 없고 섞임도 없어서 타성일편이 되면 며칠 안 가서 성취할 수 있다는 의미 아닐까?

물이 없이 물소리가 있을 수 없고, 물 흐르는 소리가 나는 곳에 물이 없을 수 없는 것이니,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갖고 있으므로 그것을 굳게 믿고 '이 뭣고'와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함께하면, 번뇌 망상이 다 떨어질 수 있다. 또한 관음도량에 가면 관음이 되는 것처럼 하나를 이루게 되는 것이며, 생활속에서 용서 참회 초조 불안 근심 걱정 등 각종 스트레스의 뿌리를 한칼에 잘

"모든 중생 불성 있어 그것 굳게 믿고 '이 뭣고' 항상 함께하면, 번뇌 망상이 모두 다 떨어져"

라버리는 유일한 금강보검(金剛寶劍)이 바로 '이 뭣고'인 것이다.

심즉시불(心卽是佛) 불즉시각(佛卽是覺)이라는 말을 음미해 보자. 마음이 곧 부처요 부처가 곧 깨달음이라는 의미이다. 깨달은 성품은 중생과 부처가 평등해 차별이 없으며, 신령스럽게 밝아 만덕을 갖추고 있으며, 묘용이 항하의 모래알과 같아서 수행과 증득을 빌리지 아니하며, 이미 깨달음 그 자체이기 때문에 깨쳐야 할 내가 없는 것이고, '이 뭣고' 또한 생사가 없는 본각(本覺)자리인 것이다.

〈금강경오가해 함허서문〉에 아가문(我迦文) 득저일제자(得這一諸子) 보관중생(普觀衆生) 동품이미(同禀而迷) 환왈기재(歎曰奇哉)라, 향생사해중(向生死海中) 가무저선(駕無低船) 취무공적(吹無孔笛)하시니 묘음동지(妙音同地)하시고 법해만천(法海漫天)이라, 어시(於是) 롱애진성(聾?盡醒)하고, 고고실윤(枯고悉潤)하야 대지함생(大地含生)이 각득기소(各得其所)하니라고 했다. 세존께서는 이 한 물건을 깨닫고 중생들이 모두 똑같이 이것을 받아 지니면서도 미(迷)한 체 있어 널리 살펴 탄식하시며 기이한 일이라 하시며 생사의 바다 한 가운데로 향해 밑바닥 없는 배를 몰고, 구멍없는 피리를 불어 묘음이 땅을 진동시키니 법의 바다가 하늘가득 함이로다. 이에 귀먹고 어리석은 범부들이 깨어나고 마른 나무들이 다 윤택하게 되며 대지의 모든 생명들이 다 그 살 곳을 얻으니,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한 물건이 '이 뭣고'이며, 그 묘음(妙音)이 바로 '이 뭣고'인 것이다.

불시일번한철골(不是一番寒徹骨) 쟁득매화박비향(爭得梅花撲鼻香)이라는 말로 오늘 강의를 마칠까 한다. "뼛속에 사무치는 매서운 추위가 아니면 어찌 코를 찌르는 매화향기가 있을 수 있겠는가?" 생사를 걸고 오직 '이 뭣고'를 생활속에서 놓치지 않으면 반드시 성불이라는 이름으로 보답(報答)하게 되어 있다. 오늘도 '이 뭣고' 수행에 최선을 다하시길….

〈남양주 선재사 주지〉

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승가회 종도모집

귀의 하옵고.

불제자로서 수행과 전법 포교만을 위해 함께 하실 제방의 큰스님들을 모십니다.

입종안내

❶ 입종 구비 서류 (승가원 비치)

□ 사찰 및 승려등록 신청서 …… 1부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진 …… 1매
□ 주민등록 등본 …… 1통
□ 반명함판 사진 …… 3매
□ 사찰 법당 내 · 외부 사진 …… 각1매
□ 귀 종단 계첩 및 승려증 사본 …… 1매

❷ 발급 증명서

□ 승려증
□ 사찰등록증
□ 주지 임명장

■ 문의 : ☎ 053)654-0408. 010-5051-3422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현충로 5길 99 원광사

(전화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남 · 녀 행자 수시 모집 합니다

※ 본 종단은 문광부 허가 제2010호-4호

※ 법인등록 274321-0029935로 등록된 사단법인 종단입니다.

(사) 대한불교조계종 승가회 승가원 승가원장 고암 정인 합장

다르마킹 칼리지

◉깨달은 절수행
표정 자세 동작 호흡법 동작 알아차림 고마움의 감사 만트라 사마타 위빠사나 알아차림의 완벽한 절. 인류 최고 최상의 건강법 절교육 : 매주 화,수,목,금,토 오후 2시~3시30분

◉깨달은 염불禪수행
4박자 1분 15회 60박자 리듬 운율 호흡법 완벽해야 잡생각 딱 끊어지는 알파파 행복 홀몬 세로토닌 쏟아진다.(염불 독경하며 가슴 어깨로 역호흡, 입으로 들숨은 병 불행의 원인)

◉깨달은 호흡법
누구나 저절로 자동 단전 공명호흡이 되어지는 7가지 특수동작(머리의 불을 끄고 배를 따뜻하게 하는 심신 건강과 수행의 핵심)

◉깨달은 감사예경 명상
번뇌 망상 딱 끊어진 참마음 참나 불성 홀깃 체험
매주 화,수,목,금,토 오전 11시~12:30

◉깨달은 와선 수행
요지부동 삼매체험, 심신 이완의 최고 경지 몸 숨 맘 사라짐 체험
매주 화,수,목,금,토 오후 2시~3시, 저녁 7시~8시

◉깨달은 참 행선 수행
황토마사길에서 맨발 11자, 오금 펴고, 손 악고, 가슴 들고, 입꼬리 올리고 미간 펴고, 미소 지으며, 시선 180도 몸 맘 지켜봄 알아차림

◉깨달은 힐링 치유법회
7시간 쉬지 않고 화끈하게 웃으며 행복한 환희의 축제
매월 둘째 주 일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

◉깨달은 삼천배 웰빙 힐링법회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저녁 9시~ 일요일 아침 6시
※템플스테이 20대 출가 예정자, 대학생, 군인, 재수생은 무료

(재)깨달은 공동체 법왕정사

한불 몸숨맘 사띠 연구소 청견

www.법왕정사.net ☎ 010.3487.0035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연 락 처
대 구 지 사 손 문 철	053)768-8008 010-2813-8008
부 산 지 사 이 도 경	051)405-9402 /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512-5003 010-2629-1508
전 북 지 사 조 동 제	063)910-8977 010-8642-7733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011-870-0021
영 주 지 국 박 영 애	054)634-3429 010-9373-3778